

# 2025년 북한 산업 평가와 2026년 전망<sup>1)</sup>

이석기 |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 sklee@kiet.re.kr

## I. 들어가는 말

중국 해관 통계나 대북 매체가 제공하는 물가 자료 등 정량적 데이터를 통한 분석과 평가가 가능한 대외무역이나 물가부문과 달리 활용 가능한 정량적 데이터가 부족한 산업부문의 평가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평가, 노동신문의 보도 동향, 그리고 대북 제재 등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연말에 개최되는 노동당 전원회의나 연초에 열리는 내각 전원회의 등의 평가는 연중 이루어지는 노동신문의 산업 및 기업 동향 자료와 함께 해당 연도의 북한 산업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2025년의 경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신문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 보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연말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26년 1월 중순 현재까지 내각 전원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2026년 1월 중순 현재 공식매체를 통해서도 연간 인민경제계획의 완수와 업종 및 주요 기업별 간략한 성과 정도만 보도되었다. 2023년 이후 산업부문 성과의 핵심 지표로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인민경제 12개 중요고지 품목의 성과는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이는 인민경제 12개 중요고지 품목을 설정하고, 이들 품목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부문의 생산동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개한 2023년 및 2024년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경제성공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를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북한경제를

1) 본고는 통일부 정책용역과제 “2025년 북한경제 연례평가(발간 예정)”의 관련 부문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평가하는 데 있어 주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2025년의 경우 산업 및 실물부문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당국의 공식적인 평가 및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의 구체적인 동향 보도를 활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추진 내역 등 경제정책과 무역 규모 등 대내외 요인들이 2025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부문에 미칠 영향의 방향 및 그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2025년 북한 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의 평가는 감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노동당 제9차 당대회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 II. 대내외 요인 평가

북한 산업 및 실물 부문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UN 대북 경제제재, 대외 경제 관계, 기후 조건, 그리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5년 차 추진과 ‘지방발전 20×10 정책’,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추진과 같은 경제정책 등을 들 수 있다. 2025년의 경우 UN 대북 경제제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요인들이 북한 산업의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분야별로 그 영향의 강도가 다르며, 특히 경제정책의 경우 전년과 작용하는 방향은 동일하나 강도는 적지 않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UN 대북 경제제재는 여전히 강력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조금씩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5년에 더 심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가발 등 새로운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고, 석탄과 임가공 의류 등이 일부 비공식적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UN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수출과 그에 따른 외화 수급에 여전히 강력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리 무기수출, 암호화폐 해킹과 불법 소프트웨어 인력 수출 등을 통하여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석탄과 임가공 의류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화 수입 감소를 충분히 상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수출과 달리 수입에 대한 UN 대북제재의 영향력은 상당 정도 약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제재에 의한 금속, 기계, 전자, 수송기계 등 핵심 자본재의 와 중간재의 수입 감소는 생산뿐만 아니라 신규 설비투자 및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를 어렵게 한다. 그런데 최근 북중 관계 개선에 따라 군사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품목의 비공식적인 대중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동신문은 9월에 김정은 명의로 량강도에 다수의 굴착기들을 공급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sup>2)</sup> 북한의 굴착기 생산 능력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생산한 공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굴착기는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정부는 평양에 수입차의 공식매장도 개설하였다. 수입 전자부품을 가공조립하여 생산한 IT 제품 시장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의해 건설되는 지방공업공장용 기계류 등 산업용 기계류 역시 수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정부 주도로 제재 품목의 대중 수입이 거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자체 공급 역량도 확충되고 있다. 김책제철소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의 조업 등에 따라 금속생산 능력이 상당 폭 증가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무기류 및 민생용 기계 및 부품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중 무역은 산업생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북한의 대중 수입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2억 9,500만달러, 수출은 27% 증가한 4억 4,000만달러였다. 최종 소비재뿐만 아니라 대두유나 플라스틱 등 중간재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 경공업 중심의 산업생산을 자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중 수입이 8% 정도 감소하고, 특히 경공업 중간재의 수입이 상당 폭 감소하여 산업생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2024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대외 경제 관계, 특히 북러 경제협력은 2025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러 무기 공급이 이어짐에 따라 무기 생산이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운의 중국 전승철 참석에 의한 북중 관계의 개선은 공식 및 비공식 무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 조건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북부지구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2024년과 달리 이렇다 할 자연재해는 없었으며, 강수량도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어 농업과 함께 수력발전 부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5개년 계획의 추진이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 농촌 주택 건설 등 정부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산업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의 강도는 전년과 적지 않게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2025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부문의 성과를 2024년의 그것과 차이가 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은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비보강 계획에 따라 설비투자에 중점을 두었던 2024년과 달리 2025년에는 강력한 생산 확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실제로 연초부터 생산 확대가 독려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2025년의 생산 확대 정책은 ‘증산절약’이라는 기조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생산 과정에서의 투입 증가를 통한 생산 확대를 추구하는 종래의 방식과 달리 설비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2) 『노동신문』(2025. 9. 24).

통한 생산 확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증산절약’ 기조는 연중 지속되었으며, 연말로 갈수록 5개년 계획의 완수가 강조되었지만, 속도전과 같이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은 추진되지 않았다. 이는 정비보강 계획으로 규정된 5개년 계획 자체가 생산의 극적인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대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의 생산 목표가 2024년에 비해서는 높게 책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인민경제계획의 수행 그 자체는 생산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 당국이 2025년 계획 및 5개년 계획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것은 산업 및 실물부문이 2024년에 이어 성장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비보강전략’인 5개년 계획의 수행에 따라 2024년까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속, 기계, 화학, 건설 등 여러 산업의 생산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 정비보강에 따른 설비투자는 2024년이 피크였을 가능성이 있다. 정비보강은 결국 실질적인 생산 능력의 확충을 의미하는데, 설비의 신설 및 보강이 생산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5개년 계획에 의한 정비보강은 2024년에는 완료되어야 한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2024년 말이 되면서 부문별로 정비보강 계획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정비보강이 아니라 생산 확대가 주된 정책기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5년에도 정비보강이 일차적인 정책기조로 설정되었다. 다만, 2024년까지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병용광로 및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이나 금성트락도르공장의 개건현대화나 북창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주요 발전소의 대규모 개보수 등 핵심 설비의 정비보강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규모 설비투자는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설비투자로는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 사업,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멜라민수지 공정 건설, 남흥정년화학연합기업소의 촉매생산기지 건설 정도가 추진되었다. 대규모 설비의 정비보강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 소재 중소규모 설비의 정비보강이 다수 추진되었다. 대규모 설비들의 정비보강이 생산 능력 확충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추진되었다면, 이들 중소규모 설비의 정비보강은 설비의 재가동이나 단순 개보수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군수부문에 대한 투자는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군수부문에다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2021~25년)을 수립하였다. 2025년은 이 국방공업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이에 5,000톤급 전함을 건조하는 등 재래식 무기의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5월에 김정은의 방문 등을 통하여 군수공장이 새로 착공 및 조업하였으며, 포탄생산종합기업소

현대화가 추진되었음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9월에는 중요 군수공장에서 미사일 생산공정이 새로 건설되어 조업하였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2025년에는 핵과 함께 재래식 무기 부문의 설비확충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이金正은의 핵심 경제정책 영역이 됨에 따라 대규모 설비투자의 둔화 조짐과는 달리 지방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의한 투자가 그 범위가 확장되어 추진되었다. 전년과 같이 새로운 20개 시, 군이 선정되어 기초식품, 의류, 일용품 공장이 건설되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바다를 낀 시, 군에서는 바닷가양식장이 이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으며, 락원군 바닷가양식장이 준공하였다.<sup>3)</sup> 그리고金正은의 지시에 의하여 2025년부터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지방의 경공업 기반 확충 사업에서 지방의 전반적인 제조업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즉, 경공업 공장과 함께 종합봉사시설, 시, 군병원, 그리고 양곡관리시설 등 3종의 공공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2025년에는 모든 시, 군에서 3종의 공공시설이 다 같이 건설되지는 않고,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건설되었다. 예를 들어 시, 군 병원은 평양시 강동군, 남포시 룡강군, 평안북도 구성시 등 3개의 시, 군에서만 건설되었으며, 종합봉사시설은 평양시 강동군, 함경남도 정평군, 개성시 개풍구역 등에서만 건설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협동농장의 ‘공공건물’도 새로 건설되거나 개보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과 농촌 주택 건설 등의 지속을 위해 지방의 건설자재 공급 역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4년에 이어 지방 건설자재 공장의 신설 및 확충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전년에 이어 밀가루가공, 학생용품 설비 등도 지속적으로 건설되거나 확충되었으며, 지방의 고려약 공장의 신설 및 확충, 다수의 중소규모 농기계 공장에 대한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

5개년 계획 및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중소규모 생산설비 확충을 비롯한 설비투자 정책의 지속은 금속, 기계, 건설 등 북한 주요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규모 설비투자 사업이 줄어들고 중소규모 설비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설비투자에 의한 중화학공업, 특히 기계공업의 생산 활성화 정도가 2024년에 비해서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택 건설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까지 주택 건설은 새시대 농촌혁명강

3) 북한 당국은 김정은이 두 번이나 락원군 바닷가양식장 사업을 현지 시찰하는 등 이 사업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령에 의한 농촌 주택과 5개년 계획의 평양 5만호 주택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2025년부터 도시의 대규모 주택 건설 활동이 평양에서 지방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평양에서는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 이외에도 서포지구 등 대규모 살림집 건설활동이 있었지만, 지방에서 대규모 주택 건설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었다. 2025년에는 자강도 강계시에서 전여 세대 고층 살림집 건설, 황해남도 및 함경남도에서 도, 시, 군 소재지 살림집 대규모 개건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농촌 살림집 건설에서 함경남도 낙원군 어촌지구, 함경북도 경원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탄부 살림집 등 어촌지구, 탄부 살림집 등 다른 생산 영역 종사자 살림집 건설로 확대되었다. 한편, 지난 몇 년 동안 대대적으로 진행된 살림집 건설 과정에서 축적된 건설인력의 역량이 점차 각 시군 살림집 공급 역량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기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인력의 역량이 건설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sup>4)</sup>

### III. 산업별 동향

#### 1. 전력과 광업

노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매체는 구체적인 내역 없이 전력공업이 월별, 분기별,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하였다고만 보도하였다. 2025년에 전반적으로 수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성과 보도가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시멘트나 질소비료 등 성과가 확실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를 보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도 경향은 발전량에 큰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24년에 북창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화력발전소와 일부 수력발전소에서 대규모 정비보수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발전 능력이 일부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석탄 공급량이 일부 증가하고 강수량도 부족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발전량은 소폭이나마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부문에서 주목할 점은 2024년 말에 사실상 건설이 완료되었다고 보도된 단천발전소 1단계가 2025년 중 시운전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가동 여부는 보도되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가동이 중단되어 오던 선봉화력발전소가 정비보수를 완료하여

4) 『노동신문』(2025. 9. 24)에서는 건설 장비보다도 건설 기능공 역량이 살림집 공급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재가동을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으며,<sup>5)</sup> 장자강발전소의 대대적인 정비보강이 완료되었고,<sup>6)</sup> 2024년에 대대적인 정비보강을 완료하였다고 보도된 북창화력발전소에서 모든 발전기의 대보수를 완료하였다고 보도되었다.<sup>7)</sup> 중소형 발전소인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가 준공되었다.<sup>8)</sup>

광업 부문에 대한 성과는 무산광산을 중심으로 한 철광과 제련 부문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비철금속광업을 중심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무산광산은 250만 대발파를 성공하여 철광석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다.<sup>9)</sup> 물론 석탄광업의 성과 보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민경제 12개 중요고지 품목의 하나로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보도되던 2024년에 비해 성과 보도가 크게 줄었다.<sup>10)</sup> 광업 부문 전체적으로 소폭의 생산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제조업

한국은행 추정치에 의하면 2024년에 제조업은 10.7% 성장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7.0% 성장하여 전체 성장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sup>11)</sup> 2025년에도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 기초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중화학공업보다는 경공업의 성장률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의 중화학공업의 높은 성장은 김책제철소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의 본격 가동에 의한 금속소재의 공급 확대와 대규모 정비보강 사업, ‘지방발전 20×10 정책’ 등에 의한 설비투자의 증가와 대러 무기 공급에 의한 군수품 생산 증가 등이 결합하여 금속 및 기계공업이 큰 폭으로 성장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런데 2025년에는 금속과 기계공업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24년 말에 준공되었다고 하는 황해제철소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의 가동 성과에 대한 보도가 2026년 1월 중순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4년의 금속소재 공급 확대는 2023년 말에 준공된 김책제철소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가 2024년 하반기 이후 본격 가동되고, 그에 따라 압연강재 생산량이 40% 이상 증가한 것에 기인하였는데, 동일한 기술, 동일한 규모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가 황해제철소에서 2024년 말에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 『노동신문』(2025. 12. 14).

6) 『노동신문』(2025. 12. 16).

7) 『조선중앙통신』(2025. 11. 24).

8) 이 발전소는 5개년 계획에서 계획된 강원도의 6개 중소형 발전소 중 마지막으로 준공된 발전소이다. 북한은 이를 ‘강원도 정산’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9) 『조선중앙통신』(2025. 11. 17).

10) 『조선중앙통신』(2025. 12. 9; 2025. 12. 13).

11) 『한국은행』(2025. 8. 29).

고, 2025년에는 이를 통한 선철 및 압연강재 생산의 증가 동향이 포착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노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매체는 금속부문이 김책제철소나 보산제철소 등을 중심으로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하였다고 보도하였지만, 2024년과 달리 구체적인 내역은 보도하지 않았다. 황해제철소의 생산 성과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만약 황해제철소의 신규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 광로가 의미 있는 가동을 하지 못하였다면, 2025년 제철제강부문은 2024년과 달리 소폭 증가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평제련소를 중심으로 비철금속 생산은 전년에 이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2)</sup>

UN 대북 경제제재로 수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금속소재의 내부 생산은 북한 기계공업의 공급 역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금속과 기계류의 비중이 큰 대규모 설비투자 사업의 감소는 수요 측면에서 기계공업의 성장을 제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핵심 소재인 철강재의 공급이 소폭이나마 증가하였으며, 군수부문에서 설비투자과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 대규모 설비투자과 정비보강은 감소하였지만, 지방공업 공장 건설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소규모 설비의 건설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계공업이 성장이 둔화되었어도 마이너스 성장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 1단계 개진 현대화 사업 완료가 기계공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다.

화학공업은 비중이 큰 질소비료 부문이 전년에 비해 소폭 상향된 연간 계획을 12월 초에 완수하였고, 연말까지 6만톤 이상 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되는 등 전년 대비 5% 내외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핵심 원료인 석탄 공급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업종 전체로 전년에 이어 소폭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설비투자 측면에서는 5개년 계획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규모 메탄올 생산공정 건설이 여전히 중간 성과도 보도하지 못할 정도로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촉매생산공정과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멜라민수지 생산공정 건설은 화학공업의 주요 설비투자 성과로 보도되었다. 지방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에 다수의 고려약공장이 신설되거나 확장된 점도 화학공업 분야의 주요 동향의 하나이다.

건설자재는 성장세가 지속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다소 감소하고 농촌 주택 건설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지방발전 정책 대상의 확대 등에 따라 다수의 중소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되어서 수요의 위축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연초에 최대 시멘트 공장의 하나인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 전년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하는 증산을 목표로

12) 『노동신문』(2025. 12. 15).

제시한 것으로 보아 2025년에도 시멘트의 수요는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상원세멘트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전년에 비해 수십만 톤의 시멘트를 증산하였다고 보도되었으며, 순천세멘트도 연관계획을 조기에 완수하였다고 하는 등 핵심 건설자재인 시멘트의 생산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3)</sup>

건설자재 부문에서 2025년에 주목되는 부분은 지방의 중소규모 건설자재 공장이 대대적으로 신설되거나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등에 의한 지방공업공장과 농촌 주택 건설 등을 지속하기 위하여 지방의 건설자재 공급 능력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40여 개의 마감건재 건설기지가 건설되고, 60여 개의 마감건재 생산기지의 생산능력이 확장되었다고 한다.<sup>14)</sup>

중화학공업이 2024년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반해 전년도에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수출 경공업 제품인 가발 및 인조눈썹 수출이 전년에 비해 9.2%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 등락이 엇갈렸던 경공업 중간재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이 2025년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식품가공용 원자재의 수입 증가폭이 컸다. 합성섬유(HS 54+55)의 수입은 4.4% 증가하였고, 식품가공용 원자재인 대두유, 팜유, 설탕, 글루탄산나트륨(MSG) 수입은 각각 32%, 59%, 42%, 7.8% 증가하였다. 그리고 일용품 제조의 주요 원료인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도 5.5% 증가하였다. 공식적인 경공업 제품의 수출 증가와 경공업 원자재의 수입 증가 등은 2025년 북한의 경공업이 전년과 달리 상당히 성장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의해 2024년에 건설된 지방공업공장들은 2025년에 가동률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일정 정도 가동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역시 경공업 생산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노동신문은 2025년 10월 현재 2024년에 건설된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과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어 김형직군의 된장 생산량이 2.5배, 고산군 일용품공장의 빨래비누 생산량은 6배, 함주군 옷공장의 생산은 3배가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함께 함주군에서는 식료, 일용품, 옷공장의 평균 생산 증가율과 순소득액 증가율이 500%와 900% 이상이라고 보도하였다.<sup>15)</sup> 보고된 생산 증가율이 매우 크지만, 이는 이들 시, 군에 기존에 존재하던 경공업 공장들이 사실상 가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13) 『조선중앙통신』(2025. 12. 23; 2025. 2. 28).

14) 『조선중앙통신』(2026. 1. 8).

15) 『노동신문』(2025. 10. 23).

〈표 1〉 지방공업공장 실적

공장	전년 대비 성과
김형직군 식료공장	된장 생산량 2.5배
은파군 식료공장	당과류 생산량 5배
이천군 식료공장	기름 생산량 4배
고산군 일용품공장	빨래비누 생산량 6배
은파군 일용품공장	수지제품 생산량 2.5배
우시군 일용품공장	목제품 생산량 10배
함주군 등의 옷공장	의류 평균 3배
함주군 식료, 옷, 일용품공장	평균 생산량 6배, 평균 순수득 10배

자료: 『노동신문』(2025. 10. 23).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공장이 완전 가동하고 있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2024년에 건설된 지방공업공장들의 상당수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 3. 건설업과 서비스업

최근 수년간 건설업은 북한 산업 중 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2024년에는 한국은행 추정치 기준으로 12.3%나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5년에도 건설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비중이 큰 주택 건설이 농촌 주택 건설의 감소로 상당히 줄어들어 건설업 전반으로는 전년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당국은 2025년에 농촌 주택을 32,000호 건설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sup>16)</sup> 이는 2024년의 55,000호 이상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규모이다. 평양시 1만호 주택과 검덕지구 주택 건설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이루어졌지만, 평양시의 1만호 건설 이외의 주택 건설이 줄어들어 평양시 주택 건설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2025년에는 2024년에 비해 주택 건설이 2만호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감소하였지만 중소규모 설비 및 공공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설비투자와 관련된 건설활동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택 건설에서 새로운 경향도 등장하고 있다. 즉, 종래 평양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대도시의 리모델링이 지방 대도시와 시, 군 소재지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황해도에서는 도인민위원회 소재지인 사리원시에서 수천 세대의 다층 주택이 외벽 타일 설치 등 리모델링 작업을 하였으며, 시, 군 소재지에서도 유사한

16) 『조선중앙통신』(2026. 1. 7).

형태의 주택 개보수가 이루어져 도 전체로는 수만 호의 주택이 리모델링되었다고 한다.<sup>17)</sup> 이러한 도시의 리모델링이 외벽 타일 부착 등 간단한 개보수에 그쳐서 농촌 주택 감소를 상쇄할 정도는 되지 않지만, 주택 건설 부문의 이러한 새로운 정책기조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경공업 제품의 생산도 증가함에 따라 수송, 유통, 창고 등 관련 서비스업도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북한정부의 사회주의 상업망 복구 정책에 따라 국영상점에 비해 종합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 상업, 유통 부문의 전체적인 생산 증가 여부는 확정하기가 어렵다. 개인의 승용차 보유가 허용되고, 수입 승용차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자동차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수송이나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 등도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등 대규모 정치 이벤트나 ‘경공업 발전 2025’ 등 전국 및 지방단위 전시회의 활발한 개최 등도 수송, 숙박, 음식 등 관련 서비스업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부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활동은 전년에 이어 소폭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장, 삼지연 관광호텔의 준공, 지역 관광지구의 개장 등 관광자원의 상당한 확충이 있었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IV. 평가 및 전망

### 1. 2025년 평가

2025년 북한 산업 및 실물 부문은 2023년 및 2024년에 이어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UN 대북 경제제재에 의한 구조적 제약을 제외하고는 산업생산을 저해할 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UN 경제제재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비공식무역 확대, 암호화폐 해킹 등 새로운 외화 수입원의 확보, 자체적인 공급 역량 확충 등으로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 조건은 수력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여타 광업이나 제조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자연재해도 없었다. 2024년에는 대중 수입이 소폭 감소하여 산업생산, 특히 식품가공을 중심으로 경공업의 생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지만, 2025년에는 최종재뿐

17) 『노동신문』(2025. 12. 13).

만 아니라 중간재도 큰 폭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산업생산, 특히 경공업의 생산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설비의 정비보강 사업이 2024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설비투자에 의한 금속, 기계, 건설자재 생산 확대 요인은 줄어들었지만, 주요 설비의 대대적인 정비보강은 발전, 금속, 화학 등의 업종에서 산업생산 능력을 일부라도 확충하는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대러 무기 수출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북한 내 무기류의 생산이 줄어들었다는 정황은 없다. 러시아 공급으로 줄어든 포탄 등 무기류 재고를 확충하기 위하여 무기 생산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재고 확충을 위한 생산이 지난해에 완료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대러 무기 공급에 따른 무기 생산 확대는 2025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2025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부문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국은행 추정치 기준 2023년의 3.1%나 2024년의 3.7%라는 높은 성장세를 2025년에도 이어갈 것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정비보강 사업이 2024년경에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여 설비투자에 따른 건설, 금속, 기계 산업에 대한 생산 확대 효과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평양 1만호와 농촌 주택 3만 2,000채가 건설되었지만 2024년 주택 건설 규모가 워낙 커서 전년 대비로는 건설 규모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군수부문에 대한 투자가 민수부문의 투자 둔화를 부분적으로 상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024년까지 진행된 생산 능력 확충이 2025년에 생산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며, 이는 2025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 체제의 특성상 2024년에 완료되었다고 하는 설비건설과 유지보수 사업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2025년에도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4년 말에 완공되었다고 보도되었지만 2026년 1월 중순까지 본격적인 가동 정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황해제철소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sup>18)</sup> 만약 2024년에 완료되었다고 보도된 상당수의 대규모 설비투자 사업이 아직 생산 능력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2025년에도 실질적인 정비보강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정비보강 완료에 의한 투자의 감소폭은 줄어들 수 있지만 북한 당국이 기대한 정비보강에 의한 생산 확대 효과는 2025년에는 제한적으로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북한 당국이 9차 당대회에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하여 성과 보도를 자제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2025년 성장률은

<sup>18)</sup> 이 외에도 신의주화학성유공장의 대규모 증이생산공정 등 2024년에 건설이 완료되었다고 보도되었지만 2025년 중 생산 성과가 보도되지 않은 설비가 상당수 있다.

2024년 수준이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 2. 2026년 전망

2026년에는 제9차 당대회가 개최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중기 계획(5개년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 시작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정비보강 계획, 즉 다음 시기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계획으로 규정되었고, 그렇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추진될 중기 계획은 금속, 화학, 기계, 경공업 등 주요 산업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장을 추구하는 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정부가 새로운 중기 계획의 첫해가 되는 2026년에 5개년 계획 기간의 정비보강 노력이 생산 확대에 연결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강력한 성장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황해제철소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병용광로나 단천발전소 1단계 등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준공되었거나 건설이 완료되었지만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대형 생산설비들이 본격 가동 될 경우 2026년은 상당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5개년 계획은 UN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외 의존도가 심하였던 금속 및 화학소재 공급망을 내부화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추진하였다. 다음 중기 계획 역시 대외 경제 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수립될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달한 소재를 최종 가공하기 위한 기계류의 대외 의존도 감소를 주된 목표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설비투자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설비투자를 지속하면서 기계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러한 방향은 2024년 12월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기계 공업은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병용광로나 대규모 메탄을 생산공정 등 특정 설비를 건설함으로써 공급 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금속 및 화학공업과 달리, 특정 기업 및 설비의 확충이 아니라 여러 산업 및 공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계류 생산을 위한 전반적인 생산 능력 확충, 기계 제작 설비의 현대화 및 기술 수준의 제고 등이 필요하다. 기계류의 공급 확대가 생산성 확대에 이어지지 못한다면, 북한산 기계의 공급 확대는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기계류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다음 중기 계획은 5개년 계획보다 난이도가 높은 계획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대 기계 공업의 발전은 IT 산업의 발전과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이 기계

산업과 IT 산업을 결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등 하드웨어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 등에서 수입해야 한다. 현대적인 기계 공급 능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중국 IT 제품만이 아니라 첨단기계설비의 수입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계류 및 IT 제품 및 부품은 UN 대북 경제제재 대상이다. 따라서 제재품목의 주된 수입선이 될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개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러시아 또한 제재품목의 우회 수입로가 될 수 있고, 일부 기계 설비는 러시아산이 북한에 더욱 적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경제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은행, 「2024년 북한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25. 8. 29.
- 『노동신문』,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은을 만다-20개 시, 군들에 일떠선 새 지방공업공장들에서」, 2025. 10. 23.
- \_\_\_\_\_, 「5개년계획의 성과적 완결을 위한 전인민적 증산투쟁 날로 고조-인민경제 여러부문, 단위에서 11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2025. 12. 3.
- \_\_\_\_\_, 「시, 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활해북도에서」, 2025. 12. 13.
- \_\_\_\_\_, 「전력생산계통의 기술개선과 현대화 공사 결속, 생산에 진입-선봉화력발전소에」, 2025. 12. 14.
- \_\_\_\_\_, 「채취공업부문 연간계획 완수단위 늘어」, 2025. 12. 15.
- \_\_\_\_\_, 「평안남도에서 시, 군 고려약 공장들을 개선」, 2025. 12. 15.
- \_\_\_\_\_, 「장자강발전소 개선보수 성과적으로 결속」, 2025. 12. 16.
- \_\_\_\_\_,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선현대화대상 준공식 진행」, 2026. 1. 20.
- \_\_\_\_\_,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촉매생산기지 준공」, 2026. 1. 21.
- 『조선중앙통신』,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철정광 생산 1.2배로 장성」, 2025. 10. 27.
- \_\_\_\_\_,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현행생산과 정비보강사업 추진」, 2025. 11. 12.
- \_\_\_\_\_, 「남흥과 흥남의 로동계급, 년간 비료생산계획 앞당겨 완수」, 2025. 12. 8.
- \_\_\_\_\_, 「화력탄 생산단위들에서 사회주의 경쟁 활발」, 2025. 12. 9.
- \_\_\_\_\_, 「석탄공업부문에서 한달 남짓한 기간에 수만톤의 석탄을 증산」, 2025. 12. 18.
- \_\_\_\_\_,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 2025. 12. 23.
- \_\_\_\_\_,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 올해 수십만t의 증산목표 달성」, 2025. 12. 28.
- \_\_\_\_\_, 「전국적으로 3만 2,000여 세대의 농촌살림집을 새로 건설」, 2026. 1. 7.
- \_\_\_\_\_, 「각지에서 마감건재 생산공정을 신설 및 능력 확장」, 2026. 1. 8.